

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

"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 · 돌봄"

2023. 5. 17.

초등돌봄 대기 해소는 국민의 삶의 질 문제

양적 측면

3월 3일, 대기 15,000명
4월 30일, 대기 8,700명
최근 6년 중 최저치

그러나

여전히 많은
학생이
대기 상태

질적 측면

늘봄학교 도입
초1 에듀케어 시작

그러나

아직 5개 교육청
214개 학교(전체 초교의 3.5%)
시범운영 중

접근성 측면

학부모는 초등돌봄교실
가장 선호 (81.4%)

그러나

맞벌이·저소득층·
한부모가정
중심으로 운영

✓ 사교육비, 학부모 경력단절, 저출생 등에 영향

세계 최고 수준의 어린이 교육 · 돌봄

안정적인

초등돌봄
대기수요 해소

- 공간·인력 등 인프라 확충
- 지역연계 강화

수준높은

만족도 높은
질 좋은 프로그램

- 초1에듀케어 확대
- 대학, 민간, 지역 등과
연계·협력 강화

차별없는

누구나
누리는 교육·돌봄

-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
단계적 확대 검토

제도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

재정 늘봄 시범교육청 확대

연구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운영

초등돌봄 대기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

공간

지역·학교별 여건 고려

- 돌봄교실 증실
- 아동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
- 교실당 학생수 탄력적용

인력

다양한 인력 활용

- 돌봄전담사, 퇴직교원, 실버인력, 학부모 등
- 법적근거 마련

지역 사회

지역자원 연계·협력

- 복지부, 여가부 등 범부처 협력
- 거점형돌봄센터 구축 ('23년, 7개이상)



학생·학부모 불편해소를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

프로그램 질적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

초1 에듀케어 확대

- 최대 1학기 ➔ 최대1년
- 시도별 자체 에듀케어 도입사례 확산

방과후 1+1 도입

-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추가로 무상제공

대학·민간·체험센터 연계

- 예·체능, 심리·정서 프로그램
대학생 멘토링, 진로체험 등

중앙-지자체-학교 거버넌스

- 지역단위 협의체 활성화
- 지역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

✓ 우수 프로그램 공급처 ↑ , 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↑

• 차별없는 •

누구나 누리는 교육·돌봄을 만들겠습니다

지금까지

맞벌이
저소득층
한부모가정 등 중심



단계적
확대



앞으로

희망하는
모든 가정

(돌봄대기를 해소한 지역·학교부터 검토)

- 단계적 로드맵 수립
- 재정지원 실시
- 정책연구, 현장 의견수렴



늘봄학교 에듀케어 전국확산과 연계

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

제도

정책 안정·지속화

「늘봄학교지원특별법」

(’23.하반기, 법안발의)

재정

예산지원 확대

늘봄 시범교육청 확대

(’23.하반기, 5개 → 7~8개)

연구

전문가 싱크탱크 운영

「미래교육돌봄연구회」

(다방면의 전문가 10인 내외)

✓ '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

늘봄학교

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
수준높은 교육 · 돌봄
정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